

이주 난민·성소수자... 한국 사회 인권 현주소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지난 2012년 몽골 출신 고등학생 민호(가명)는 귀국을 앞둔 몽골 친구 송별식에 참여했다 사건에 휘말리고 만다. 한국 학생의 인증차별적 언행이 발단이 돼 벌어진 싸움이 원인이었다.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된 그는 화성의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결국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다.

민호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 중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로 인해 더불어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인 존재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합법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 아동수가 6000여명에 이르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호 문제해결을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대책 위원회를 꾸렸고 "분명 한국에 살고 있음에도, 그 어떤 법으로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인 수많은 "민호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이 펴낸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은 10가지 쟁점과 사례와 법적 투쟁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지 들여다본다.

공감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다. 2004년 '차별과 인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후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

되고 있다. 창립 후 지금까지 공감은 다양한 사례를 법원과 국회로 끌고 들어가 862건의 공익 소송 지원, 151건의 연구·실태조사, 148건의 법제도 개선활동을 펼쳐왔다.

저자들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차별도 용인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책은 성소수자, 이주난민, 디지털성 폭력 피해 여성, 빈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등 법과 제도의 빈자리에 놓여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를 촘촘히 살핀다.

일명 'n번방' 사건 피해자 가희(가명)의 사례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중을 올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취업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공감의 시선은 해외로도 향해 캄보디아 빈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한국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실태를 고발한다. 그밖에 성소수자 난민 인정 소송,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사건, 10·29 이태원 참



디지털 성착취 추적을 위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창비 제공>

사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룬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길을 낼 때마다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민호를 몽골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방으로 도움을 요청한 답인, 교정시설에서 성소수자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자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사건을 공론화 한 수현씨, 난민신청자의 결을 3년간 지킨 활동가 등이다.

"어떤 노력을 해도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지만" 공감은 여전히 씩씩하다. 책에서 언급된 어떤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지만 공감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창비·1만 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새로운 책

▲터널의 밤(안나 볼츠 지음, 오승민 그림, 나현진 옮김)=1940년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는 런던, 지하철역 터널에 몸을 숨긴 청소년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희망을 지켜 나간다. 소아마비로 트라우마를 안은 엘라, 거리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제이. 전쟁 속에서도 꿈과 우정을 나누는 세 명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참상과 인간다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섬세하고 뜨겁게 그려낸다. <문학과지성사·2만2000원>

▲최적화라는 환상(코코 크림 지음, 송예슬 옮김)=효율성과 수익성을 앞세운 '최적화'가 현대 사회를 어떻게 지배해왔는지, 그 이면에 어떤 공허와 균열이 존재하는지를 파헤치는 탐구서.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던 저자가 미국 전역을 횡단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만나며 데이터부의 진실을 깨닫는다. 성장을 향한 맹목적 질주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여유', '장소', '규모'의 감각을 복원할 시점을 묻는다. <위즈덤하우스·1만9000원>

▲상수리나무 책방(김춘기 지음)=기억 저편에 남은 고향의 풍경과 가족의 손길을 고요하게 불러낸 첫 시집. 아궁이의 연기, 벽장의 소주병, 등병배미의 물소리 등 잊힌 듯한 장면들이 단정한 언어로 되살아난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



서, 느리고 소박한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시집. 우리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그 시절의 감정을 조심스레 불러낸다. <걷는사람·1만2000원>

▲공정한 기회: 모두에게 열리는 문장철길 지음)=MZ세대와 함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며, 공정과 혁신이라는 두 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한다. 로스쿨과 대학입시, 노동구조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며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짚고, 교육·정부·기업 차원의 변화와 '혁신 사회'로 나아가는 실행 과제를 제시한다. <바른북스·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엄마 레벨 테스트(김윤진 지음, 시은경 그림)=뽕점 엄마와 뽕점 딸이 함께 만드는 '행복 만점 가족 만들기' 대작전. 학원마다 뽕점을 맞은 마루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쓰는 엄마가 함께 펼치는 따뜻한 성장 이야기. 마루를 위해 '베스트 엄마 학원'에 간 엄마는 레벨 테스트에서 뽕점을 받고 만다. 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를 쓸수록 마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과연 '좋은 가족'이란 무엇일까? 마루와 엄마의 이야기가 사랑과 이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파란자전거·1만2900원>

▲나의 먼 이름에게(길상호 지음, 신은정 그림)=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나'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인간의 곁에 머물

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고대 늑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생존과 자유를 배운 '나'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의 모험은 우리 곁에 있는 개들이 지닌 깊은 감정과 유대를 되새기게 된다. <창비·1만1000원>

▲태풍이 된 회오리(박영란 지음, 하수정 그림)=하늘로 떠오른 아기 회오리들이 바다의 열기, 사막의 뜨거운 바람, 산불의 열기까지 안고 결국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태풍이 되어가는 과정을 풀어낸다. 책은 기후위기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시에, 위기 앞에서 희생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한다. <마음이음·1만3000원>

패자의 역사를 가까스로 부활 재생시킨 슬픈 기록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라

백시중 지음



매년 장편을 발간해오던 백시중 소설가가 1년 사이에 두 권의 장편을 펴냈다.

여수 출신 백시중 작가가 지난 해 말 '수평선 너머'를 선보인 데 이어 얼마 전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라'를 발간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장편소설을 써낸다는 것은 작가적 상상력과 성실성이라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백작가는 작가로서의 자의식, 직업적인 투철함이 몸에 밴 예술가다.

특히 그는 말이 아닌 쓰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작가는 사실을 증명한다. 평생 소설 한두 권 써내지 못하

고 문단에서 자취를 감추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서 귀감이 된다.

이번 작품은 한 기업의 총수가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비리를 작중의 소설가와 그의 친구가 파헤치는 내용을 다뤘다.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며, 공간적 배경은 서울의 주요 공간을 토대로 한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장편은 7개월 만에 완성할 만큼 순식간에 태어났다.

소설 속 김영구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시골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살 집은 물론 제법 넓은 면적의 야산을 구입한다. 그러나 6·25로 피난을 가다 등기문서 등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다. 가방을 손에 넣게 된 사기범인 김춘복은 김영구 출마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사기를 친다. 그런 다음 모 생명보험의 세대병이라는 인물에게 땅을 넘기는데...

소설은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기와 음모, 비리 등을 다룬다. 작중의 소설가와 그의 친구가 권력을 방

패샤마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가의 행태를 파헤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느 시대든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남는 것은 승자의 역사뿐이다. 그러나 작가는 지워진 패자의 역사도 함께 기록되고 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작품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다.

백작가는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슬픈 흔적을 재생한, 흡사 눈물자국 같은 기록"이라며 "승자의 위력에 짓눌려 압사한 패자의 역사를 가까스로 부활 재생시킨 슬픈 기록"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작가는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신춘문에, 동아일보,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김동리 문학상,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장편 '물', '그 여름의 풍향계', '서랍 속의 반란', '여수의 눈물', '삼봉이 순자 연대기', '썩썩' 등을 펴냈다. <사이버문학관·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